

보험중개사(공통) - 보험관계법령 등 - 1쪽

1.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해보험 ② 질병보험
- ③ 간병보험 ④ 연금보험

2. 보험업을 처음 경영하려는 자가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약관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② 정관
- ③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 ④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중개사 등록 후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이 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경우
 다.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보험업법 제101조의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① 가, 나 ② 가, 나, 다
- ③ 다, 라 ④ 다

4.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보험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보험회사는 그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 내용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라면 금융위원회는 그 부수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6.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 ②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 ③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7.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 ㉡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① 2개 ② 3개
- ③ 4개 ④ 5개

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경우 납입하여야 할 최저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자동차보험 취급
- ② 기술보험·권리보험 동시 취급
- ③ 화재보험·책임보험 동시 취급
- ④ 생명보험 취급

9.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원칙에 직접 해당하는 보험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상해보험 ② 화재보험
- ③ 생명보험 ④ 변액보험

10.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
- ②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 ③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 ④ 보험금의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11.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보험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다.

12.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3월을 내리지 못한다.
- ④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③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④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14. 상법상 법정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② 생명보험계약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④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5.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

22. 초과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 ②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도 초과보험에 해당한다.
- ④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 ② 재보험관계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된다.
- ③ 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 ④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4.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할 수 있다. ② 무효이다.
- ③ 해지할 수 있다. ④ 해제할 수 있다.

25.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상법상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30일내의 낙부통지의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할 수 없다.
- ③ 보험자가 낙부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④ 보험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26. 보험계약에 대한 상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 ②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정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③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④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7.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8. 다음 중 생명보험자의 보험적립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임의해지를 한 경우
- ② 보험계약자의 위험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한 경우
- ③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로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 ④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 ① 자영업자도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피보험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③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각각 납부한 경우 27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보장성보험료 중 일부가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8. 지난 1년 간 회사로부터 수령한 총 연소득이 6,000만원인 성실해 과장은 회사의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본인납입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을 합하여 세제혜택 한도까지 납입하고 있다. 이 경우 성실해 과장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지난 1년 간 적립된 총 연금자산은 얼마인가?(단, 회사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부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음)

- ① 300만원 ② 400만원
- ③ 700만원 ④ 1,200만원

39. 우리나라의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연금 형태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 ② 가입대상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 ④ 가입자 사망시 수령한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상속인이 수령한다.

40.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인 연금으로서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③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는 기본연금액의 최대 60%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 ④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의 근로자 평균임금 인상을 만큼 올라가므로, 연금의 구매력이 유지된다.